

서울 도심의 열섬현상 심각하다

아까시나무 서울·해남 동시 개화

서울 도심의 아까시나무(일명 아카시아) 꽃이 남쪽의 땅끝 마을 해남지역과 개화시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심의 '열섬 현상' 때문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06년도 아까시나무의 개화시기를 지표로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서울 태릉역을 기준으로 한 도심지역 아까시나무의 개화시기는 5월17일로 나타났다.

이는 한반도 최남단인 해남이나 부산·밀양 등과 개화시기(5월18일)가 거의 같다. 서울과 동일한 위도에 위치한 강릉에 비해서는 8일, 홍천에 비해서는 6일 일렀다.

아까시나무는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데다 유전자변이가 적어 기후변화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같은 서울지역 내에서도 도심의 개화시기는 외곽 지역에 비해 훨씬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대공원·서강대교 등 도심에 있는 아까시나무의 개화시기는 5월18~19일로 태릉역과 비슷했다. 그러나 북악산 팔각정(5월27일), 관악산공원(5월23일) 등 외곽지역은 개화시기가 최고 10일까지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서울 도심의 개화시기가 더 일러졌다. 잠실과 태릉지역은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이른 5월10일과 11일 각각 꽃이 폈다.

산림과학원은 도심의 열섬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열섬'은 도심의 온도가 대기오염이나 인공열 등의 영향으로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2006년 서울 지역의 3~4월 평균기온은 18~19도로 남부지방인 해남·밀양 등과 비슷하고, 중부지방인 수원·원주·안동에 비해 2도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과학원 생태유전연구팀 조경진 박사는 "도심지역의 열섬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